

[26] 1월

초 1일(갑술) 맑음. 촛불을 밝히고 혼자 앉아 나라 일을 생각하니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른다. 또 병드신 팔십 노친을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새벽엔 여러 장수들과 색군(色軍)들이 와서 해가 바뀐 인사를 하였다. 원전(元典), 윤언심(尹彦諱), 고경운(高景雲)들이 와서 보았다. 모든 색군들에게 술을 먹였다.

초 2일(을해) 맑음. 나라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아니했다. 장계를 수정했다.

초 3일(병자) 맑음. 일찍 대청에 나가 각 고을의 공문을 적어 보냈다.

초 4일(정축) 맑음. 우우후(右虞候 * 이정충(李廷忠)), 거제(巨濟 * 안위(安衛)), 금갑도(金甲島 * 이정호(李廷虎)), 소비포(所非浦 * 이영남(李英男)), 여도(呂島 * 이인영(李仁英))들이 와서 봤다.

초 5일(무인) 맑음. 공문을 적어 보냈다. 봉()과 울(蔚)이 왔다. 어머니가 평안하시다니 다행이었다. 밤이 새도록 온갖 회포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초 6일(기묘) 맑음. 어응린(魚應麟)과 고성 현감(固城縣監 * 조흥도(趙疑道))이 왔다.

초 7일(경진) 맑음. 흥양(興陽 * 배흥립(裴興立))과 방언순(方彦淳)과 함께 이야기했다. 남해(南海)의 항복한 왜인 야여문(也汝文)들이 와서 인사를 드렸다.

초 8일(신사) 맑았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광양(光陽 * 송전(宋詮))의 공례를 때렸다.

초 9일(임오) 식사 후 야해문들을 남해로 돌려 보냈다.

초 10일(계미) 순천부사(順天府使) 박진(朴晉)이 교서에 숙배례(肅拜禮)를 행했다. 경상수사(慶尙水使) 원균(元均)이 선창에 왔다는 말을 듣고 불러 들여 이야기했다. 순천(順天) 우우후(右虞候), 흥양(興陽), 광양(光陽), 웅천(熊川 * 이운용(李雲龍)), 고성(固城), 거제(巨濟)들도 왔다가 돌아갔다.

11일(갑신) 우박이 왔고 동풍이 불었다. 식후에 순천, 흥양, 고성, 웅천, 영등포(永登浦 * 조계종(趙繼宗))가 와서 이야기했다. 고성은 새로 만드는 배를 감독할 일로 돌아간다고 했다.

12일(을유) 흐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각 고을의 공문서를 적어 보냈다. 저녁에 순천이 돌아갔다. 영남 우후(嶺南虞候), 이의득(李義得)이 와서 봤다.

13일(병술) 아침엔 맑았고, 저녁엔 비가 왔다. 박치공(朴致恭)이 왔다.

14일(정해) 맑음. 동풍이 크게 불었다. 몸이 불편하여 누워서 신음했다. 영등, 사천(泗川 * 기직남(奇直男)), 여도가 와서 봤다.

15일(무자) 맑음. 우우후 이정충을 불렀더니 정충이 실족하여 물에 빠져 한참이나 헤엄치는 것을 간신히 건져 내었다 하므로 불려서 위로했다.

16일(기축) 맑음. 대청에 나가 공무를 봤다.

17일(경인) 맑음. 바람도 없이 따뜻했다. 대청에 나가 공무를 봤다. 우우후와 소비포와 거제와 미조항(彌助項 * 성윤문(成允文))이 같이 와서 활을 쏘고 헤어졌다.

18일(신묘) 흐림. 공문을 적어 보냈다. 늦게 활 10순을 쏘고 헤어졌다.

19일(임진) 맑음. 대청에 나가 공무를 봤다. 옥구(沃溝) 피란민 이원진(李元軫)이 왔다. 장흥(長興 * 황세득(黃世得)), 낙안(* 김준계(金遵繼)), 발포(鉢浦 * 황정록(黃廷祿))가 들어왔다. 기한 늦은 죄로 처벌했다. 조금 있다가 여도 전선에 불이 나서 광양, 순천, 녹도(鹿島) 전선 4척이 연소됐다. 통탄함을 이길 수 없었다.

20일(계사) 맑음. 아침에 여필(汝弼 * 아우)과 해(* 조카)와 이응복(李應福)이 나갔다. 울과 분(芬 * 조카)은 들어왔다. 어머니가 평안하시다 하니 다행이다.

21일(갑오) 종일 실비가 내렸다. 이경명(李景明)과 장기를 두었다. 장흥이 와서 봤다. 그에게서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의 처사가 극히 형언할 수 없고 나를 해치려고 몹시 애를 쓴다는 말을 들으니 참으로 우스웠다.

22일(을미) 날이 맑았으나 종일 큰 바람이 불었다. 원수 군관(元帥 軍官) 이태수(李台壽)가 전령을 가지고 와서 여러 장수들이 오고 아니 온 것을 알고 간다고 했다. 늦게 다락을 위로 나가서 불을 낸 여러 배의 장수와 색리(色吏)들을 처벌했다. 초저녁에 금갑도 만호가 있는

집에서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

23일(병신) 큰 바람이 종일 불었다. 장흥 부사와 우후와 흥양이 같이 와서 이야기하다 저물어서 돌아갔다.

24일(정유) 맑고 큰 바람이 불었다. 이원진(李元軫)을 전별했다.

25일(무술) 맑음. 장흥가 흥양과 우후, 영등, 거제 등이 와서 봤다.

26일(기해)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탐선(探船)이 들어와서 흥양을 잡아 갈 나장(羅將)이 들어온다고 했다. 이희(李禧)도 왔다.

27일(경자) 맑음. 촉기가 한겨울 같았다. 대청에 나가 영암(靈岩)이 들어왔다.

28일(진축) 맑음. 큰 바람이 불었고 또 추웠다. 황승헌(黃承憲)이 들어왔다.

29일(임인)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30일(계묘) 맑음. 동풍이 크게 불었다. 보성(寶城 * 안흥국(安興國))이 들어왔다.

[27] 2 월

초 1일(갑진) 맑았으나 바람이 불었다. 일찍 대청에 나가 보성의 기한 늦은 죄를 다스리고, 도망하던 왜놈 2명을 처형했다. 금부(禁府) 나장이 와서 흥양을 잡아 갈일을 전했다.

초 2일(을사) 흐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흥양을 잡아갔다. 대청에 나가 공무를 봤다.

초 3일(병오) 맑음. 일찍 대청에 나갔다. 흥양 배에 불을 던졌다는 신덕수(申德壽)를 신문했으나 실증을 얻지 못하여 가뒀다.

초 4일(정미) 맑음. 몸이 불편했다. 장흥과 우우후가 왔다. 원수부(元帥府)의 회답 공문과 종사관(從事官)의 답장도 왔다. 봉과 회가 오종수(吳從壽)와 함께 들어왔다.

초 5일(무신) 맑음. 충청 수사(忠淸水使 * 이순신(李純信))가 왔다. 천성 만호(天城萬戶) 윤흥년(尹弘年)이 교서에 숙배했다.

초 6일(기유) 맑았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장흥, 우우후들과 함께 활을 쏘았다.

초 7일(경술) 맑음. 보성(寶城 * 안흥국(安興國))이 술을 가져와 바쳤다. 종일 이야기했다.

초 8일(신해) 흐림.

초 9일(임자) 비.

초 10일(계축) 비가 뿌렸다. 바람도 크게 불었다. 황숙도(黃叔度)와 종일 이야기했다.

11일(갑인) 비. 늦게 잠깐 개었다. 황숙도와 분과 허주(許宙)와 변존서(卞存緒)가 돌아갔다. 종일 공무를 보았다. 저물녘에 임금의 본부가 들어왔는데, 둔전(屯田)을 검칙(檢飭)하라는 것이었다.

12일(을묘) 맑음. 바람도 일지 아니했다. 윤엽(尹曄)이 들어왔다. 늦게 활을 10여순 쏘았다. 장흥가 우우후도 와서 쏘았다.

13일(병진) 맑음. 일찍 대청에 나갔다. 도양(道陽) 둔전서 조세 3백석을 실어와서 각 포구에 나누어 주었다. 우수사(右水使 * 이억기(李億祺))와 진도(* 박인룡(朴仁龍)), 무안, 함평(咸平 * 조발(趙撥)), 남도포(南桃浦 * 강응표(姜應彪)), 마량(馬梁 * 강응호(姜應虎)), 회령포(會寧 * 민정봉(閔廷鵬))들이 왔다.

14일(정사) 맑고 따듯했다. 식후에 진도(* 박인룡)와 무안, 함평이 교서에 숙배한 뒤에 방비처에 들이는 해군을 징발해 보내지 아니한 것과 전선을 만들어 오지 않은 일로 처벌했다. 영암원(* 박홍장(朴弘章))도 처벌했다. 봉, 해, 분과 방응원(方應元)이 모두 나갔다.

15일(무오) 맑고 따듯했다. 새벽에 대궐을 바라보며 하례를 드렸다. 우수사(* 이억기) 가리포(* 이응표), 진도도 아서 참례했다.

16일(기미) 맑음. 대청에 나갔더니 함평 원조발이 논박을 당하고 돌아가므로 술을 먹여 보냈다. 신조방장(申助防將) 호(浩)가 진에 와서 교서에 숙배하고 그대로 같이 이야기했다. 저녁에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로 나가 정박했다고 밤 10시에 행선하여 춘원도(春院島 * 통영군 광도면(統營郡 光道面))에 대니 날이 밝아 오는데 경상도 해군들은 도착하지 아니했다.

17일(경신) 맑음. 아침에 군사들의 밥을 재촉해 먹여 거느리고 바로 우수영 앞 바다에 이르니 성 안에 있던 왜놈 7명이 우리 배를 보고 도망질 치므로 배를 돌려 나왔다. 장흥과 신조방장을 불러 종일 계책을 의논하고 진으로 돌아왔다. 저물녘에 임영(林榮)과 정조방장(丁助防將) 응운(應運)이 들어왔다.

18일(신유) 맑음. 탐선이 들어왔다.

19일(임술) 맑음. 아침에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거제, 무안, 평산포(平山浦 * 김축(金軸)), 회령포(* 민정봉)와 허정언(許彦闇)도 왔다. 송한연(宋漢連 * 공의 군관)이 와서 말하되, [고기를 잡아 군량을 산다]고 했다.

20일(계해) 맑음. 우수사, 장흥, 신조방장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원균의 고약한 짓을 많이 전했다. 참 놀랄 일이었다.

21일(갑자) 조금 비가 오다가 늦게는 맑아졌다. 보성, 웅천, 우우후, 소비포, 강진(康津 * 이극신(李克新)), 평산 등이 와서 왔다.

22일(을축) 맑음. 대청에 나가 장계를 봉했다. 늦게 우후와 낙안(樂安)과 녹도(鹿島 * 송여종(宋汝宗))를 불러 떡을 대접했다.

23일(병인) 맑음. 신조방장과 장흥이 와서 이야기 했다.

24일(정묘) 흐림. 번개와 우뢰가 치면서도 비는 오지 아니했다. 몸이 불편했다. 원전이 돌아갔다.

25일(무진) 흐리고 바람조차 불순했다. 회와 울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머니가 평안하시다는 말을 들었다. 장계를 가지고 갔던 이전(李筌)이 들어왔다. 조보(朝報)와 영의정(* 유성룡)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26일(기사) 흐림. 아침에 서장(書狀)과 장계 모두 16통을 봉해서 정여흥(鄭汝興)에게 부쳤다.

27일(경오) 한식(寒食), 맑음. 원균이 포구에 있는 배 수사설(褻水使楔)과 교대하려고 여기 이르렀기로 교서에 숙배하게 하였더니 불평한 기색이 많으므로 두번 세번 타일러 억지로 행하게 하였다 하니 너무도 무식한 것이 우스웠다.

28일(신미) 맑음. 대청에 나가 장흥과 우우후와 이야기했다. 광양, 목포도 왔다.

29일(임신) 맑음. 고여우(高汝友)가 창신도(昌信島)로 나갔다. 배수사가 와서 둔전 만들 일을 의논했다. 신조방장도 왔다. 저녁에 옥포 만호 방승경(方承慶)과 다경포 만호(多慶浦萬戶) 이충성(李忠誠)들이 교서에 숙배례를 행했다.

30일(계유)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28] 3월

초 1일(갑술) 맑음. 삼도의 과동(過冬)한 군사들을 모아 위에서 하사하시는 무명배를 나누어 주었다. 정조방장(* 응운)이 들어왔다.

초 2일(을해) 흐림.

초 3일(병자) 맑음.

초 4일(정축) 맑음. 박조방장(朴助防將) 종남(宗男)이 들어왔다.

초 5일(무인)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노대해(盧大海)가 왔다.

초 6일(기묘) 맑음.

초 7일(경진) 맑음. 박조방장(* 종남) 신조방장(* 호(浩)), 우후(* 이몽구(李夢龜))와 진도(* 박인룡)가 와서 보았다.

초 8일(신사) 맑음. 식후에 대청으로 나갔다. 우수사와 경상수사(* 배설)와 두조방장과 우후, 가리포, 낙안, 보성, 광양, 녹도 등이 모두 와서 이야기했다.

초 9일(임오) 맑음. 늦게 대청으로 나갔다. 방답(防踏) 새첨사 장린(張麟), 옥포 새 만호 이담(李曇)이 공적, 사적 인사를 행했다. 진주(晉州)의 이곤변(李坤)이 보고 갔다.

초 10일(계미) 흐리고 실비가 왔다. 박조방장(* 종남)과 이야기했다. 보성 군수 안흥국이

돌아갔다.

11일(갑신) 흐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 사도주부(司道主簿) 조형도(趙亨道)가 와서 좌도(左道)의 적세와 항복한 왜인들의 보고를 말하는데, [수길(秀吉)이 출병한지 3년이나 지나도 끝내 효과가 없으므로 군사를 더 내어 바다를 건너 와서 부산에다 진영을 만들려고 하는데, 3월 11일에 바다를 건너 오기로 벌써 정해 있다]고 했다.

12일(을유) 흐림. 박조방장과 우후가 장기를 두었다.

13일(병술) 흐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아침에 박자유(朴子胤 * 종남), 영공(令公)을 불러서 함께 밥을 먹었다. 저녁을 먹은 뒤에 조형도가 와서 보고 돌아갔다.

14일(정해)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바람은 그쳤다. 남해(*奇孝謹)가 진에 왔다.

15일(무자) 비가 잠깐 그쳤다. 바람도 잦다. 식후에 조형도가 돌아갔다. 늦게 활을 쏘았다.

16일(기축) 비. 사도첨사(蛇渡僉使) 김완(金浣)이 들어왔다. 그래서 전 충청수사 이임부(李立夫 * 이순신(李純信))가 군량 2백 여석을 조도어사(調度御使) 강첨(姜簽)에게 포착되어 그 때문에 잡혀서 심문 당한다고 했다. 또 충청 새 수사 이계훈(李繼勛)이 배에서 불을 내었다 하니 놀라운 일이었다. 권동지(權同知) 준(俊)이 본영에 왔다고 했다.

17일(경인) 비가 걷히는 듯했다. 면()과 허주와 박인영들이 돌아갔다. 이날 군량을 계산하여 딱지를 붙였다. 충청 우후(* 원유남(元裕男))가 보고하되, [수사 이계훈이 불을 내고 물에 빠져 죽었으며, 군관과 격군(格軍) 모두 백 40여명이 불에 타 죽었다]하니 참으로 놀랄 일이었다. 늦게 우수사(* 이억기)가 보고하되, [견내량(見乃梁) 복병한 곳에서 온 항복한 왜인 심안은기(沈安隱己)를 문초한 즉, 그자는 본시 영등에 있던 왜인인데, 그 장수 심안돈(沈安頓 * 도진의홍(島津義弘))이 그 아들(* 충항(忠恒))을 대신 두고 근일에 돌아갈 것이라 한다]고 했다.

18일(신묘) 맑음. 권언경(權彦卿)과 여필, 조카 봉, 수원(壽元)들이 왔다. 그래서 어머니의 평안하심을 들으니 만번 다행이었다. 우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19일(임진) 맑음. 권언경 영공과 함께 활을 쏘았다.

20일(계사) 비가 주룩주룩 나렸다. 식후에 우수사에게로 가다가 길에서 배수사(* 설)를 만나 배 위에서 잠깐 이야기했다. 밀포(密浦) 둔전 만든 곳을 살펴 볼 일로 간다고 했다. 그 길로 우수사에게로 가서 몹시 취학 저물녘에 돌아왔다.

21일(갑오) 맑음. 늦게 여필, 조카 봉, 수원 등이 돌아갔다. 나주반자(羅州半刺 * 원종의(元宗義))와 우후(* 이몽구)가 와서 보았다. 오정에 박조방장(* 종남)에게로 가서 바둑을 두었다.

22일(을미) 동풍이 크게 불었다. 날씨는 일찍 흐리고 늦게 개었다. 세 조방장가 활을 쏘았다. 우수사도 여기 와서 같이 쏘고 날이 저물어서 파하고 돌아갔다.

23일(병신) 맑음. 아침을 먹은 뒤에 세 조방장과 우후와 함께 도보로 앞 산 봉우리 위에 올라가 보니 3면으로 바라보는 앞이 막히지 않고 길은 북쪽으로 뚫려 있다. 소포(幬) 세울 자리를 닦고 거기에 앉아 종일토록 즐기며 돌아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24일(정유) 흐렸으나 바람은 없었다. 공문을 적어 보았다. 늦게 세 조방장과 함께 활을 쏘았다.

25일(무술) 종일 비가 내렸다. 권동지(* 준)와 우후와 남포도(* 강응표)와 나주 반자가 와서 보았다. 영광(* 정연(丁淵))이 또 왔다. 권동지와 장기를 두었는데 권이 이겼다. 저녁에 몹시 불편하더니 달걀 울 무렵에 열이 조금 내렸고땀이 흐르지 아니했다.

26일(기해) 맑음. 영광이 나갔다. 늦게 신, 박 두 조방장과 우후와 함께 활 15순을 쏘았다. 저녁에 배수사 이운룡, 안위가 와서 새 감사 맞이할 일을 고하고 사랑(蛇梁 * 통영군 원량면(統營郡 遠梁面))으로 갔다. 밤 10시에 동쪽이 어둡다가 밝으니 무슨 상 서로옴인지 모르겠다.

27일(경자) 맑음. 식후에 우수사가 와서 종일 활을 쏘았다. 어두워 박조방장에게로 가서 발포(鉢浦), 사도(蛇渡), 녹도를 불러 같이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탐선이 들어왔다. 표마(表馬)와 종 금이(金伊)들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평안하시다고 말했다.

28일(신축) 맑음. 활10여순을 쏘았다. 늦게 사도 첨사(* 김완(金浣))가 와서 아뢰되, [각

포고의 병부(兵符)를 순찰자 공문에 의거하여 바로 각 포구에 나누어 주었다] 하니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29일(임인) 맑음. 식후에 두 조방장과 이운룡, 조계종과 함께 활23순을 쏘았다. 배수사가 순찰사에게로부터 오고 미조항 첨사(彌助項僉使 * 성윤문(成允文))도 진에 왔다.

[28] 4월

초 1일(계묘) 맑았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들으니 남원 유생 김홍(金弘)이 해군에 관한 일로써 진중에 왔다고 하므로 같이 이야기했다.

초 2일(갑진) 맑음. 종일 공무를 보았다.

초 3일(을사) 맑음. 세 조방장은 우수사 진으로 가고 나는 사도(*김완)와 함께 활을 쏘았다.

초 4일(병오) 맑음. 아침에 경상 수사(*배설)가 활쏘기를 청하므로 권, 박 두 조방장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수사에게 갔더니 전라 수사(*이억기)가 벌써 먼저 와 있었다. 같이 활을 쏘고 종일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초 5일(정미) 맑음. 선전관 이찬(李燦)이 비밀 유서(諭書)를 가지고 진에 왔다.

초 6일(무신) 종일 실비가 내렸다. 권 동지와 함께 이야기했다.

초 7일(기유) 맑음. 저물녘에 바다로 내려가 어두워서 견내량에 이르렀다. 선전관(*이찬)이 돌아갔다.

초 8일(경술) 맑음. 동풍이 몹시 불었다. 들으니 왜적이 밤중에 도망갔다고 하므로 들어가 치지 아니했다. 늦게 첨도(砦島)에 이르러 우수사와 배수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여러 장수도 모두 와서 참여했다. 저녁에 본진으로 돌아왔다.

초 9일(신해) 맑음. 박 조방장과 활을 쏘았다.

초 10일(임자) 맑음. 구화역(仇化驛 * 구허역(丘墟驛)) 역졸이 와서 아뢰되 적선 3척이 또 역암(*통영군 광도면 노산리)에 왔다]고 하므로 삼도 중위장(中衛將)들에게 각각 배 5척씩을 거느리고 견내량으로 달려가 형세를 보아 무찌르게 했다.

11일(계축) 맑음. 우수사가 와서 보았다. 그래서 활을 쏘고 종일 이야기하다 돌아갔다. 정여홍이 들어왔다. 또 변존서의 편지를 보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줄을 알았다. 기쁘다.

12일(갑인) 맑음. 장계 회답 18통과 영의정(*유성룡) 우의정(*정탁(鄭琢))의 편지와 자임(子任 * 이축(李軸)) 영공의 답장이 왔다. 군량을 독촉할 일로 아병(牙兵) 양응원(梁應元)은 순천, 광양으로 배승련(裴承鍊)은 광주, 나주로 송의연(宋義連)은 홍양, 보성으로, 김충의(金忠義)는 구례, 곡성으로 정해 보냈다. 삼도 중위장 성윤문, 김완, 이응표가 견내량으로부터 돌아와 적이 물러 갔다고 했다. 배 수사는 밀포(密浦)로 나갔다.

13일(을묘) 굵은 비가 왔다. 세 조방장이 같이 왔다. 장계와 편지 4통을 봉하여 거제군관에게 붙여 올려 보냈다. 저녁에 고성 현감 조응도가 와서 왜적의 일을 말하고 또 [거제의 적들이 웅천에 청병하여 야간 습격을 하려고 한다] 하니 믿을 말은 못되나 그럴 염려가 없지 않았다.

14일(병진) 잠깐 비가 왔다. 아침에 흥양이 교서에 숙배례를 행했다.

15일(정사) 흐림. 여러가지 장계와 단오 진상품을 봉해 올렸다.

16일(무오) 종일 큰 비가 왔다. 비가 흡족하니 금년 농사는 풍년이 들 것이다.

17일(기미) 맑음. 동북풍이 몹시 불었다. 식후에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세 조방장이 활 15순을 쏘았다. 배수사가 왔다가 곧 해평장(海平場) 논 치는 곳으로 갔다. 미조항 첨사가 와서 활을 쏘고 갔다.

18일(경신) 맑음. 식후에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우수사 가리포(*이응표), 미조항(*성윤문), 웅천(*이운룡), 사도(*김완)와 이의득, 발포(*황정록(黃廷祿))등 삼도 장수가 모두 와서 활을 쏘았다. 권, 신 두 조방장도 함께 모였다.

19일(신유) 맑음. 박조방장(*종남)은 수색 토벌하는 일로 배를 타고 나갔다.

20일(임술) 맑음. 늦게 우수사에게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돌아왔다. 이영남의 장계 회

답을 가지고 내려 왔는데 남해를 효시하라고 했다.

21일(계해) 맑았으나 큰 바람이 부었다. 대청에 나갔다. 활10순을 쏘았다.

22일(갑자) 맑음. 오후에 미조항 첨사와 이운룡, 적량 만호 고여우, 영등포 만호 조계종과 두 조방장이 같이 왔기로 정사준(鄭思竣)이 보낸 술과 고기를 같이 먹고 그대로 남해가 군법을 어기었으니 효시하라는 글을 보았다.

23일(을축) 맑음. 남풍이 몹시 불어 행선할 수 없으므로 다락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24일(병인) 맑음. 이른 아침에 울과 뇌(* 조카)와 완(莞 * 조카)을 어머니 생신에 상차려 드릴 일로 내어 보냈다. 오정 때에 강천석이 달려와서 아뢰되, [도망한 왜놈 망기시달(望己時老 * 손사랑(孫四郎))는 무성한 풀 속에 엎드린 것을 잡고, 왜인 한 놈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기에 압송해 오게 하고 삼도에 갈라 맡긴 항복한 왜들은 모두 불러 모으고 곧 머리를 베라고 명령했더니 망가시로가 조금도 두려운 빛이 없이 죽으로 나왔다. 참 독한 놈들이었다.

25일(정묘) 날이 맑고 바람이 없었다. 구화역졸 득복(得福)이 경상 우후(* 이의득)의 보고를 가지고 왔는데 [왜의 배 대, 중소 아울러 50척이 웅천서 나와 진해로 향한다] 하였기로 오수(吳水)들을 정탐하러 내어 보냈다. 흥양(* 배흥립)이 와서 보았다. 사량 만호 이여념(李汝恬)이 돌아갔다. 회(* 아들)와 해(* 조카)가 돌아왔다. 어머니가 평안하시다 하니 다행, 다행이다.

26일(무진) 맑음. 새벽에 우수사와 신 조방장(* 호)이 소속 20여척 배를 거느리고 탐색하러 나갔다. 늦게 권 동지(* 준), 흥양, 사도, 여도(* 김인영)들과 활20순을 쏘았다.

27일(기사) 맑고 바람도 없었다. 몹시 불편했다. 권동지, 미조항 첨사, 영등 만호가 와서 같이 활10순을 쏘았다. 밤 자정에 우수사가 수색 토벌하고 진을 돌아아서 [아무데도 적의 종적이 없더라]고 했다.

28일(경오) 맑음. 식후에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우수사와 경상 수사가 와서 활 쏘았다. 송덕일(宋德一)이 하동원(* 성천유(成天裕))을 잡으러 왔다.

29일(신미) 새벽 2시에 비가 오더니 오전 6시에 맑아졌다. 해남 현감(* 최위지(崔緯地))과 공사례를 마친 뒤에 하동 현감이 두번이나 제 기일로 오지 않았으므로 곤장 90을 때리고, 해남원은 곤장 10을 때렸다. 미조항 첨사는 말미를 고했다. 세 조방장과 같이 이야기했다. 노운발(盧潤發)이 미역 99동을 따 가지고 왔다.

30일(임신) 맑음. 활 10순을 쏘았다.

[29] 5월

초 1일(계유) 바람이 몹시 불어쳤다.

초 2일(갑술) 맑음. 아침에 바람이 몹시 사납게 불었다. 늦게 웅천(* 이운룡)과 거제(* 안위), 영등포(* 조계종), 옥포(* 이담)가 와서 보았다. 밤 10시에 탐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평안하시고 종사관이 본영에 도착했다고 했다.

초 3일(을해) 맑음. 활 15순을 쏘았다. 해남이 와서 보았다. 금갑도(* 이정표)가 집에 왔다.

초 4일(병자) 맑음. 이날은 어머니 생신인데, 몸소 나가 잔을 드리지 못하고 홀로 먼 바다에 앉았으니 회포를 어찌 다 말하랴. 늦게 활 15순을 쏘았다. 해남이 돌아갔다. 아들의 편지를 보니 요동 왕작덕(王爵德)이 왕씨의 후손으로서 군사를 일으킨다고 하니 참으로 놀랄 일이다.

초 5일(경축)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6시에 잠깐 개었다. 활 3순을 쏘았다. 우수사(* 이억기)와 경상수사(* 배설)와 여러 장수들의 모두 모였다. 오후 5시에 종사관 유공정(柳拱辰)이 들어왔다. 이충일(李忠一), 최대성(崔大成), 신경황(申景潢)이 같이 왔다. 몸이 춥고 불편하여 많이 토하고 잤다.

초 6일(무인) 맑고 바람은 없었다. 아침에 종사관이 교서에 숙배한 뒤에 공사례를 받고 같이 이야기했다. 늦게 활10순을 쏘았다.

초 7일(기묘) 맑음. 아침에 종사관(* 유흥진)과 우후(* 이몽구)와 같이 이야기했다.

초 8일(경진)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아침 식후에 행선하여 삼도가 같이 선인암(仙人岩)으로 가서 이야기하고 구경하고 또 활도 쏘았다. 이날 방답 첨사(★강린)가 들어왔다. 아들들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초나흔날 중 춘세(春世)가 불을 실수해서 10여 집이 연소되었으나 어머님 계신 집에는 미치지 않았다] 하였다. 이것만은 다행한 일이었다. 저물기 전에 배를 돌려 진으로 들어 왔다. 종사관과 우후는 방(榜) 불이는 일로 뒤떨어졌다.

초 9일(신사) 맑음. 아침 식후에 종사관이 돌아갔다. 오후도 같이 갔다. 활20순을 쏘았다.

초 10일(임오) 맑음. 활 20순을 쏘았는데 많이 맞았다. 종사관들이 영문에 도착했다고 했다.

11일(계미) 늦게 비가 뿌렸다. 두치(豆峙 ★광양군 다압면 섬거리) 군량과 남원, 순창, 옥과(玉果)등 합하여 68석을 실어 왔다.

12일(갑신) 곳은 비가 그치지 아니하다가 저녁에야 잠깐 멎었다.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권동지(★준)와 신 조방장(★호)이 왔다.

13일(을유) 비가 퍼붓듯이 왔다. 종일 그치지 아니했다. 혼자 대청에 앉았으니 온갖 회포가 끝이 없었다. 배영수(裴永壽)를 불러 거문고를 타게 했다. 또 세 조방장을 청해다가 같이 이야기했다. 요사이 탐선이 옛새가 되도록 오지 아니한다. 어머님 안부를 알 수 없이 무척 걱정스럽다.

14일(병술) 곳은 비가 그치지 아니했다. 종일토록 밤 새도록 내렸다. 아침 식후에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사도가 와서 고하되 [흥양이 받아 간 전선이 돌섬에 걸려서 얹어졌다]고 하므로 대장(大將) 최벽(崔壁)과 십선장(十船將) 도훈도(都訓導)를 잡아다가 곤장을 때렸다. 권 동지가 왔다.

15일(정해) 곳은 비가 개지 아니했다.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겠다. 새벽에 꿈이 산란했다. 어머님 안부를 못 들은지 벌써 이레라 무척 초조했다. 또 해(★조카)가 잘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다. 아침 식후에 나가 공무를 보자니 광양 김두검(金斗劍 ★헌)이 복병할 적에 순천, 광양 두 원에서 이중으로 식료(朔料 ★월급)를 받은 것 때문에 별로 써 해군으로 나왔는데 칼도 아니 차고 활도 아니 차고서 무척 오만하므로 곤장 70을 때렸다. 늦게 우수사가 술을 가지고 와서 몹시 취하여 돌아갔다.

16일(무자)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아침에 탐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님은 평안하시다 하고 아내는 불 난리로 심신이 많이 상해서 천식이 더해졌다고 했다. 걱정이다. 비로서 해들이 잘 간것만은 알았다. 활 20순을 쏘았는데 권동지가 잘 맞혔다.

17일(기축) 맑음. 아침에 나가 본영 각 배 사부(射夫)와 격군으로 급료 받은 사람들을 점고했다. 늦게 활20순을 쏘았는데 박, 권 두 조방장이 잘 맞혔다. 이날 소금 가마솥 하나를 부어 만들었다.

18일(경인) 맑음. 아침에 충청 수사가 진에 왔다. 결성(結城 ★손안국(孫安國)) 보령 서천 만호(★소희익(蘇希益))만을 거느리고 있다. 충청 수사가 교서에 숙배한 등 세 조방장과 함께 이야기했다. 저녁에 활 10순을 쏘았다. 거제가 와서 보고 그대로 갔다.

19일(신묘) 맑음. 동풍이 차게 불었다. 아침을 먹은 뒤에 권, 박, 신 세 조방장과 사도방답 두 첨사와 활 30순을 쏘았다. 선수사(宣水使 ★거이(居怡))도 와서 같이 참여 했다. 저녁에 소금 가마솥 하나를 부어 만들었다.

20일(임진) 저녁에 비바람이 불었다. 밤새도록 멎지 아니했다. 아침 식후에 공무를 보았다. 선수사와 권 조방장과 장기를 두었다.

21일(계사) 흐림. 오늘은 필시 본영에서 누가 오긴 하겠지마는 미처 어머님 안부를 몰라 답답했다. 중 옥이(玉伊)와 무재(武才)를 본영으로 보냈다. 포어(鮑魚)와 소어(蘇魚) 젓갈, 어란쪽 들을 어머님께 보냈다. 아침에 나가 공무를 보자니 항복한 왜들이 와서 고하되 저희 동료 왜로서 산소(山素)란 자가 흥척한 일이 많기 때문에 죽이겠다고 했다. 그래서 왜를 시켜 목을 베게 했다. 활 20순을 쏘았다.

22일(갑오) 맑고 화창했다. 권동지들과 함께 활 20순을 쏘았다. 이수원(李壽元)이 서울 올라가는 일로 들어왔다. 비로소 어머님이 평안하신 줄 알았다. 다행이다.

23일(을미) 맑음. 세 조방장과 활 15순을 쏘았다.

24일(병신) 맑음. 아침에 이수원이 장계를 가지고 나갔다. 박 조방장(★종남)과 충청 수사

와 선수사를 시켜 활을 쏘게 했다. 소금 가마솥을 부어 만들었다.

25일(정유) 맑음. 늦게 비가 왔다. 경상 수사, 우수사, 충청 수사가 같이 모여 활9순을 쏘고 충청 수사가 술을 내어 몹시 취하여 헤어졌다. 배수사에게서 김응서(金應瑞)가 거듭 대간(臺諫)들의 논란을 받고 또 원수(元帥)고 거기 끼여 있다는 말을 들었다.

26일(무술) 늦게 개었다. 혼자 대청에 앉아 공무를 보았다. 충청 수사와 세 조방장과 종일 이야기했다. 저녁에 현덕린이 들어왔다.

27일(기해) 맑음. 활10순을 쏘았다. 선수사와 두 조방장이 취해서 돌아갔다. 정철(丁哲)이 서울서 전해 왔는데 장계회답 내용에 김응서가 함부로 강화를 말한 것을 죄로 돌린다는 말을 많이 했다. 영의정(*유성룡)과 좌의정(*김종남)의 편지가 왔다.

28일(경자) 저녁에 흐리더니 저녁 비가 크게 쏟아졌다. 밤새도록 큰 바람이 불었다. 전선을 안정시킬 수가 없어 간신히 구호했다. 식후에 선 수사와 세 조방장과 이야기 했다.

29일(신축) 비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종일토록 퍼부었다. 사직(社稷)의 위엄과 영험을 힘입어 겨우 조그만한 공로를 세웠는데, 임금의 총애와 영광이 너무 커서 분에 넘치는 바가 있다. 장수의 직책을 띤 몸으로 티끌만한 공로도 바치지 못했으며 입으로는 교서를 외면서 열굴에는 군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있음을 어찌하랴.

[30] 6월

초 1일(임인) 늦게 개었다. 권, 박, 신 세 조방장과 웅천(*이운룡), 거제(*안위)들과 함께 15순을 쏘았다. 선수사(*거이)는 이질로 쏘지 못했다. 새로 번드는 영리(營吏)가 들어왔다.

초 2일(계묘) 종일 실비가 내렸다. 식후에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한비(韓)가 돌아가므로 어머님께 편지를 썼다. 영리 강기경(姜起敬), 조춘종(趙春種), 김경희(金景禧)와 신흥언(申弘彦)이 모두 번을 서러 갔다. 오후에 가덕, 천성, 평산포 적량들이 와서 뵈었다. 천성 만호 윤홍년이 와서 청주 이계(李繼)의 편지와 서숙(庶叔)의 편지를 전하며, 김개(金介)는 지난 3월에 죽었다고 했다. 비통함을 참을 길 없었다. 저물녘에 권언경 영공이 와서 이야기했다.

초 3일(갑진)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식후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각처에 서류를 적어 보냈다. 늦게 가리포(*이응표), 남도포(*강응표), 권, 신 두 조방장과 방답(*장린), 사도(*김완), 여도(*김인영), 녹도(*송여종)와 함께 활 15순을 쏘았다. 아침에 남해(*기효근)가 보고하되 [해평군 윤두수가 남해에서 본영으로 건너온다] 하므로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곧 배를 정비하고 현덕린을 영으로 보냈다. 사랑 만호(*이여념(李汝恬))가 양식이 떨어졌다고 아뢰고 곧 돌아갔다.

초 4일(을사) 맑음. 진주 서생(書生) 김선명(金善鳴)이란 사람이 계원 유사(繼援有司)가 되겠다고 왔는데, 보인(保人) 안득(安得)이라는 자가 데리고 왔다. 그 하는 말을 듣고 행동을 살펴보니 그것을 보장하기 어려워 아직 기다려 보기로 하고 공문을 만들어 주었다. 세 조방장과 사도, 방답, 여도, 녹도와 활 15순을 쏘았다. 탐선이 오지 않아 어머님의 안부를 알지 못하니 답답하다.

초 5일(병오) 맑음. 이 조방장들과 아침을 같이 먹었는데 박자윤(*종남)은 병을 오지 못했다. 늦게 우수사, 웅천, 거제가 와서 종일 같이 이야기했다. 오정때부터 비가 오기 때문에 활을 쏘지 못했다. 나는 몸이 몹시 불편하여 저녁밥을 먹지 않고 종일 고통했다. 서울 종이 들어왔다. 어머님이 평안하다 하니 다행이다.

초 6일(정미) 종일 비가 왔다. 몸이 몹시 불편했다. 송희립(宋希立)이 들어왔다. 그 편에 *도양장(道陽場)의 농사 형편을 들으니 [흥양(*배흥립)이 무척 애를 써서 추수가 잘 될 것 같다]고 했다. 계원유사 임영도 힘을 많이 쓴다고 했다. 정항(鄭沆)이 왔으나 나는 몸이 불편하여 종일 앓았다.

초 7일(무신) 비. 종일 비가 왔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누웠다 앓았다 하며 신음했다.

초 8일(기유) 비. 몸이 조금 나은것 같았다. 늦게 세 조방장이 보러 왔었다. 곤양(昆陽)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분상했다고 했다.

초 9일(경술) 맑음. 몸이 아직 쾌하지는 아니했다. 민망스럽다. 신 조방장(*호)과 사도, 방답과 함께 편을 갈라 활을 쏘았는데 신의 편이 이겼다. 저녁에 원수 군관 이희삼(李希參)이

유서(諭書)를 가지고 왔는데 조형도가 무고하여 장계하되 [해군 1명에 하루 양식 5홉씩과 물 7홉씩을 준다]고 하였다 하니 세상 일이란 참으로 놀랍다. 천하에 어찌 이같이 무도한 일이 있을 것인가. 어둑에 탐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이질에 걸렸다 하니 걱정스럽다.

초 10일(신해) 맑음. 새벽에 탐선을 본영으로 내어 보냈다. 늦게 세 조방장과 충청 경상수사(*배설)가 와서 보았다. 광주(廣州) 군량 39석을 받았다.

11일(임자) 실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 아침에 원수 군관 이희삼이 돌아갔다. 저녁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광주 군량 도둑 한 놈을 잡아 가두었다.

12일(계축) 실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 새벽에 울리 들어오는 편에 들으니 어머니 병환이 조금 덜 해졌다고 하나 구십 노인이 이런 위대한 병이 걸렸으니 걱정스럽다.

13일(갑인) 흐림. 새벽에 경상 수사 배설을 잡아 올리라는 명령이 내려오고 그 대신으로 권준이 되었으며, 남해 기효근을 그대로 유임되었다 하니 놀랄 일이다. 늦게 배수사를 가보고 돌아왔다. 어둑에 탐선이 들어왔다. 금오랑(金吾郎)이 벌에 영중에 도착했다. 그리고 별좌(別坐)의 편지를 보니 어머니가 차츰 나아 가신다 하니 다행, 다행이다.

14일(을묘) 새벽에 큰 비가 왔다. 수사와 여러 장수들이 모두 모이고 늦게 날이 개어서 활 12순을 쏘았다. 저녁에 금오랑이 배 수사 잡아가는 일로 들어왔다. 권 수사(*준)를 임명하는 조정의 공문과 유서(諭書)와 *밀부도 있다.

15일(병진) 맑음. 새벽에 망궐례를 행했다. 식후에 포구로 나가 배설을 송별했다. 몸이 불편했다. 울(*아들)이 돌아갔다. 오후에 신 조방장(*호)과 활 10순을 쏘았다.

16일(정사) 맑음. 나가 앉아 공무를 보았다. 순천 칠선장(七船將) 장일(張湓)이 군량을 도둑질하다가 잡혔으므로 처벌했다. 오후에 두 조방장과 미조항들과 활 7순을 쏘았다.

17일(무오) 맑음. 큰 바람이 종일 불었다. 경상 수사와 충청 수사(*선거이)와 두 조방장들과 활을 쏘았다.

18일(기미)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진주 전비 유천룡과 하응문(河應文)이 양식을 대어달라고 청하여 쌀 5석을 받아갔다. 늦게 박 조방장(*종남)과 함께 활 15순을 쏘았다.

19일(경신)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다락 위에 홀로 앉았더니 천만 뜻밖에 면(*아들)이 윤덕종(尹德種)의 아년 운로(雲輅)와 같이 왔는데, 어머니 편지를 보니 병환이 완쾌하시다고 했다. 만번 다행이다. 신흥헌(申弘憲)들이 들어와서 보리 76석을 바쳤다.

20일(신유)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종일 다락에 앉았다가 충청 수사(*선거이)가 말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말을 듣고 저녁에 친히 가서 보니 중태에는 이르지 아니했으나 바람과 습기에 많이 상한 때문이라 걱정스러웠다.

21일(임술) 맑음. 몹시 더웠다. 식후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신흥헌이 돌아가고 거제가 또 왔다. 경상 수사(*권준)가 보고 하되 [평산포(*김축(金軸))가 병이 중하다]고 한다. 그래서 내어 보내라고 적어 보냈다.

22일(계해) 맑음. 조모님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아니했다. 경상 수사가 와서 보았다.

23일(갑자) 맑음. 두 조방장과 활을 쏘았다. 저녁에 배영수가 돌아갔다.

24일(을축) 맑음. 우도(右道) 각 고을과 포구의 전선에 부정 사실을 조사했다. 음녀 12명을 잡아내고 그 대장까지 처벌했다. 늦게 침을 맞아 활을 쏘지 못했다. 허주와 해(*조카)가 들어오고 전마(戰馬)도 왔다. 기성백(奇誠伯)의 아들 증헌(證憲)이 그 서숙(庶叔), 경충(景忠)과 함께 왔다.

25일(병인) 맑음. 원수(元帥)의 공문이 들어왔는데, 세 위장을 세패로 갈라 보낸다고 했다. 그리고 행장(行長 *소서(小西))이 일본으로부터 와서 화친을 이미 결정했다고 했다. 저녁에 박 조방장(*종남)과 함께 충청 수사(*선거이)에게로 가서 그 병세를 보니 이상한 일이 많았다.

26일(정묘) 맑음. 식후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활 15순을 쏘았다. 경상수사(*권준(權俊))가 보았다. 오늘은 언경 영공(*권준)의 생신이라 하므로 국수를 만들어 먹고술도 취하고 거문고도 듣고 저(箏)도 불다가 저물어서야 헤어졌다.

27일(무진) 맑음. 허주와 해(*조카)와 기운로(奇雲輅)들이 돌아갔다. 나는 신 조방장(*호)과 거제와 함께 활 10순을 쏘았다.

28일(기사) 맑음. 나라 * 제삿날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주】 나라제삿날-명종대왕 제삿날

29일(경오) 맑음. 일찍 대청에 나갔다. 우수사가 왔다. 활 10여순을 쏘았다.

30일(신미) 맑음. 문어공(文語恭) 이 삼(生麻)을 사들일 일로 나갔다. 이상록(* 공의 군관)도 돌아갔다. 늦게 거제, 영등이 와서 보았다. 방답과 녹도와 신 조방장이 활 15순을 쏘았다.